



가톨릭 안동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니다.”

관계의 회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개최 기원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제388호 2026년 6월 7일(가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십자가상의 예수(앙드레 부통 신부 작품, 화동공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요한 6,51)

제1독서 신명기 8,2-3.14L-16ㄱ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코린토 1서 10,16-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요한 6,51-58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사회복지법인
우석민 로만 신부

오늘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을 통해 성체성사의 신비를 다시 바라보고 단순히 “성체를 모신다.”는 차원을 넘어, 예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빵으로 내어주셨는지를 묵상했으면 합니다.

제1독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굶주린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합니다. 돈, 안정, 인정, 관계, 성공 등등.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허기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마음은 불안하고 지쳐 있고, 외롭고,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한 육적 양식만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성체의 신비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성체를 모시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체성사는 단순한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체를 모시기에 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나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사랑 하나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성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오늘 우리가 모신 성체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요, 보시더!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하혈하는 부인과 아이로의 딸 1

마르코 복음서 5장에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기적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연결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대상은 아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의 딸입니다.

참고로 회당은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이후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새로운 신앙 중심지로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회당장은 회당에서의 예배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은 평신도 대표였습니다.

이야기는 아이로와 예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로는 회당장의 체면도 집어던진 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가 어린 딸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 딸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병 때문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로의 간절한 청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하십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독자들이 예수께서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를 기대하며 지켜보는 바로 이때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삽입은 아이로 딸의 이야기에 극적인 효과를 줍니다. 마치 연속극 한 회의 이야기가 무르익었을 때 ‘다음 시간에...’라고 하며 끊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는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던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이 여인은 빈발월경의 증상을 보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정상주기보다 짧은 주기로 생리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병에 속합니다.

이 하혈하는 여인은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

니다. 그는 극심한 육신의 고통 외에도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 사회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 여자는 이레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레위 15,19-20)

또한, 이 여인은 병의 치유를 위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의술은 과학보다는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병에 적용되는 치료법은 타조알을 태운 재를 천 조각에 싸서 가지고 다니거나 암나귀의 똥 속에서 발견된 보리 낱알을 가지고 다니는 것 등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치유가 될 리 없었죠. 그러니 헛되이 모든 재산만 탕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던 여인은 어디선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에 사람들 속에 숨어서 예수께 다가갑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신다면 부정이 옮겨갈 하여 몸에 손을 대게 하실 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예수께 손을 댄 하혈하는 여인, Basilica di Sant'Apollinare Nuovo의 모자이크화, 6세기 작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홈스테이 가정 교육

대 상 : 홈스테이 신청 가정(대표 1명), 홈스테이 관심있는 분

일 정 : 6. 7(주일) 15:00 북부지구 - 휴천동성당 / 안동지구 - 송현동성당 6. 14(주일) 15:00 문경지구 - 점촌동성당
6. 21(주일) 15:00 상주지구 - 계림동성당 6. 28(주일) 15:00 동해지구 - 영덕성당 / 의성지구 - 안계성당

준비물 : 필기도구, 텀블러, 열린마음!! / 문 의 : 사목국 청소년 청년 담당(054-858-3115)

현재까지 접수된 홈스테이 신청가정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 유해 현시 : 남성동성당(5월 30일 ~ 6월 20일), 옥산성당(6월 20일 ~ 6월 27일)

교구장 동정



6월 8일(월)~12(금)
• 사제피정
6월 12일(금)
• 사제성화의 날

축하합니다
영명축일

6월 9일(화) 장현준 에프렘 신부
6월 13일(토) 김지성 안토니오 신부

교 구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기원 성지순례
'희망의 순례자들' 완주자
교구장 축복장 수여 미사

대 상: 희망의 순례자들(안동교구)
성지순례 완주자
일 시: 6. 27(토) 15:00
장 소: 교구청
신청마감: 6. 15(월)까지
준비물: 희망의 순례자들(안동교구)
문 의: 054-858-3114

교리교사학교

일 시: 6. 14(주일) 13:40~17:50
장 소: 교구청
준비물: 텀블러, 필기도구

예비신학생 6월 모임

일 자: 6. 21(주일)
장 소: 교구청

2026년 본당 사목임원, 교구 제단체,
평협임원 하계연수

대 상: 본당사목임원, 교구제단체장, 평협 임원
일 시: 6. 26(금) 17:30~06. 27(토) 점심 식사
장 소: 농은수련원
신청마감: 6. 17(수) 19:00 / 참가비: 1인 4만원

청소년 청년 대회(Pre-DID)

대 상: 중고등부, 청년
일 시: 7. 25(토) 10:00~26(주일) 13:00
장 소: 농은수련원
신청마감: 6. 12(금) / 참가비: 1인 6만
준비물: 간편한 복장, 편한 신발, 세면도구,
미사준비, 개인 상비약 등
문 의: 사목국(청소년 청년 담당)

제 단 체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제3기 수료작품전

개회식: 6. 19(금) 11:00
일 시: 6. 19(금) 11:00~6. 20(토) 17:00
장 소: 교구청 강당
주 최: 가톨릭 전례꽃꽂이 연구회

수 도 회 · 피 정

함께 읽는 영어성경

Peace: 매주 수요일 15:00~16:30
Hope: 매주 목요일 15:00~16:30
장 소: 안동 바오로딸
문 의: 010-2461-3065

포콜라레 여름마리아폴리

일 시: 7. 16(목)~19(주일)
장 소: 경주 코모도호텔
주 제: 사랑하면 알리라
신청기간: 6. 27(토) 14:00부터 선착순 마감
신 청: http://www.focolare.or.kr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소모임

일 시: 매월 셋째주 주일 14:00
장 소: 대구 월배성당 원죄 없으신 성모수도원
문 의: 010-4344-1997(권정대베드로수사신부)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 7월 개강

애덕의 교회사- 이진현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헬레니즘 시대
- 주원준 박사
에밀리 디킨슨: (침묵하는) 신에 대한
언어의 실험- 김민철 신부
루카와 사도행전, 나자렛에서 로마까지
- 김건동 신부
자크 마리탱의 그리스도교 인간학
- 김민 신부
예수의 윤리1: 사랑하며 사는 삶의 경로
- 박상훈 신부
현존 영성수련(7주 or 8주)- 김영근 신부
*각 6주,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 청: 02-3276-7733, center.jesuit.kr

제주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마라도 순례: 7.3(금)~5(주일), 7.10(금)
~12(주일), 8.21(금)~23(주일)
한라산 숲길: 7.17(금)~19(주일)
우도: 7.24(금)~26(주일)
올레길: 9.17(목)~19(토)
추자도 성지순례: 9.4(금)~7(월), 9.11(금)
~14(월), 10.31(토)~11.3(화), 11.14(토)~17(화)
문 의(면형의 집): 064-732-4702

교 육

치매 전문가 무료 교육

일 정: 6. 20(토), 27(토)
시 간: 09:00~14:30 (총 2일 10시간,
중식 제공)
내 용: 치매 종류, 치매 증상, 치매 평가,
치매 예방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협약서 제출 필요)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생성형AI 활용과정 무료 교육

일 정: 6. 20(토), 27(토)
시 간: 09:00~13:00 (총 2일 8시간)
내 용: AI 활용 이미지 생성, 영상기획 및
PPT 제작 실습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협약서 제출 필요)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알코올중독 치유(가족교육)

가족이 먼저 배워야 합니다.

- 날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안동(신청 후 안내)
• 신청 및 문의: 황영화 신부(010-5119-1158)
• 중독전문 슈퍼바이저(010-6563-5805)

2027 세계청년대회 성공개회 기원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본당에 비치된 봉헌함에 적힌 안내를 참고하
여, 기도하시고 목주알을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안동교구대회를 위한 준비에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